

## [공모펀드 변경 안내]

가. 대상 펀드 : 교보악사 파워브라질 증권 자투자신탁 1호(주식)

나. 변경 시행일 : 2023년 5월 12일

다. 변경 내용 :

- 결산기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실제수익률 변동성 변경  
(실제 수익률 변동성 '1등급' 30.55%'-> 실제 수익률 변동성 '1등급' 30.03%')
-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연금계좌 및 퇴직연금제도 과세 개정사항 반영

### [일괄신고서, 투자설명서]

구분	정정전	정정후
[요약정보] 투자비용 표 운용전문인력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		작성기준일로 갱신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주1)~주2) <생략> <신설>	주1)~주2) <현행과 같음> 주3)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-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-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4)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위험	<신설>	※증권대차 거래 위험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

		수 있습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 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	<b>투자위험 등급 ( 1 ) 등급</b> <b>매우 높은 위험 수준</b> 교보악사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표준편차 <u>30.55%</u> )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	<b>투자위험 등급 ( 1 ) 등급</b> <b>매우 높은 위험 수준</b> 교보악사자산운용(주)는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(최근 결산일 기준표준편차 <u>30.03%</u> )을 감안하여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1등급(매우 높은 위험)으로 분류하였습니다.
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-	-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- 1,000 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업데이트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-연금저축계좌 가입자	<별첨 1 참조>	<별첨 1 참조>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-퇴직연금제도의 세제	<별첨 2 참조>	<별첨 2 참조>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. 재무정보 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 기준)		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최근 회계연도 기준으로 갱신  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	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-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갱신 라. 운용자산 규모 -신고서 작성기준일로 갱신

#### [간이투자설명서]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-----	-------	-------

[요약정보] 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 운용전문인력		작성일 기준으로 갱신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-------

<별첨 1>  
(정정 전)

**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**

구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 년 이상, 연 1,800 만원 한도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 및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(이하 "전환금액"이라 한다)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
수령요건	55 세 이후 10 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] 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. [2017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]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% 또는 300 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. [2020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]</li> <li>※ 종합소득이 있으며, 해당 과세기간에 「소득세법」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. [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]</li> <li>-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li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li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</li> </ul>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
분리과세한도	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 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
해지가산세	없음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천재지변</li> <li>-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</li> <li>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 50 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 개월 이상 요양</li> <li>-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</li> <li>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</li> </ul>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 ~ 3.3%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

바랍니다.

(정정 후)

**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**

구분	주요 내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 (이하 “전환금액”이라 한다)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연금계좌 세액공제	[납입금액] - 해당과세기간에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. ①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중 적은 금액 [세액공제] 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납입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 [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, 지방소득세 포함]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 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한도	연 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) 연 1,200만원을 초과하는 연금소득은 종합소득과세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 선택가능 [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]
일반해지시 과세 (연금외수령시)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
해지가산세	없음
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천재지변</li> <li>-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</li> <li>-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소득세법 제50조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)의 질병·부상에 따른 3개월 이상 요양</li> <li>- 가입자가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</li> <li>-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영업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</li> <li>- 연금계좌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li> </ul>
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 (나이에 따라 변경, 지방소득세 포함)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

※나이별로 5.5~3.3% 원천징수하고, 1,2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

※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 <별첨 2>

### (정정 전)

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.

- ① 세액공제: 근로자의 추가부담금은 연금저축과 합산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 이내의 금액)하여 연간 700 만원 한도까지 12% 세액공제
- ② 과세이연: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
- 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: 연금인출,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

## <별첨 2>

### (정정 후)

#### ① 세액공제

-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+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.
-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3.2%에 대해 세액공제.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)인

### **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입금액 16.5%에 대해 세액공제**

※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한 세율입니다.

### **② 과세이연**

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,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.

### **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**

연금수령, 일시금수령 등 수령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.